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 『찐레꽃』,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김 은 하*

차 례

- | | |
|------------------------|------------------------|
| I. 국경과 길 위의 여자들 | III. 초국가적 다문화주의와 차이의 낭 |
| II. 애타게 '여성'을 찾아서-남한 남 | 만화 : 『바리데기』 |
| 성의 탈국경 멜로드라마: 『찐레꽃』 | IV. 결론 |

국문초록

최근 한국문학에 우세한 탈국경의 상상력은 근대국민국가가 구축된 배타적 경계 속에서 소외된 타자들의 초상을 담아낸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문학의 폐쇄적인 틀을 허무는 한편으로 새로운 정체성, 대안적 이념을 협상함으로써 탈근대 주체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특히 여성 이주자들의 표상은 그러한 기대를 모은다. 이는 여성이주자가 반성적 매개로 서 국경의 폭력성과 배타성을 비추고 고발할 것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좁은 의미의 국경을 넘어 적극적인 디아스포라 되기를 실천하면서 근대적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복수적 주체의 등장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간 한국문학에서 여성들의 이동과 유목은 타락이나 추방을 의미했기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때문에 집과 고향을 떠나 이상적 공동체를 찾아가는 모험은 허락되지 않았다. 여성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남북이라는 위장의 도구를 빌려야만 했다. 21세기 여성 디아스포라들의 여정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나 정도상의 연작장편소설 『절레꽃』에서 탈북여성은 통합된 자기의 감각을 상실한 진보주의 한국남성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로 등장한다. 90년대 이후의 세계체제의 재편으로 인한 북한의 위기상황은 한국의 체제비판적 지식인들이 더 이상 북한을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의 거점이자 반근대적 향수의 표상으로 전유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최근 한국문학에서 탈북여성은 총체성의 확보가, 근대적 주체의 기획이 불가능해진 전망부재의 시대를 살게 된 데 따른 무력한 상황 속에서 재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바리데기』는 세계화의 중심에 우뚝 서고 싶은 의욕적인 욕망의 문학적 현현이다. 작가는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서양/동양, 남성/여성, 이성/감성, 의식/무의식 등 근대적 이분법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동양에 대한 표상은 오리엔탈리즘을 익숙하게 반복한다. 이렇듯 탈북여성은 마이네리티로 적극 호명됨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확정지어지거나, 한국의 지식인이 세계문학 안으로 끼어들어가기 위한 타자로 점령당한다. 디아스포라 모티프는 새로운 정체성, 얼터너티브한 에너지, 분산됨의 역동적 파동을 찾는 참신한 실험이 되지 못한다.

주제어 : 디아스포라, 탈북여성, 젠더-섹슈얼리티, 다문화주의, 성별정치학, 초국가주의, 탈국경 상상력, 로맨스 플롯, 디아스포라 지식인, 이주 여성

I. 국경과 길 위의 여자들

최근 한국소설의 서사적 무대는 국경 바깥으로까지 점차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외국인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어 초국가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다. “소설이 근대의 발명품인 민족 내지 근대 국민국가의 인종적·영토적·언어적 경계를 실정화한 장르”¹⁾라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상황은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일이다. 이광수가 한국 근대문학의 이념과 형식을 주조한 이래 한국문학은 한국어로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은 것으로 통용되어 왔듯이 그간 한국문학의 이념과 제도는 배타적이라 할 만큼 속인·속지·속문주의를 자연화해옴으로써 ‘국문학’의 이념은 내셔널리즘의 포섭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승인해 왔기 때문이다.²⁾ 이를 테면 한국문학과 사회에서 ‘혼혈아’나 ‘양공주’는 민족의 오염의 기표로서 탈식민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확정해주기 위해 혐오스러운 괴물 혹은 이방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희생양 전략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체성의 기준을 제공하여, 누가 우리에게 속하고 누가 배제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행복한 부족을 건설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자주 어떤 아웃사이더를 배척”³⁾한다는 리처드 커니의 말처럼 한국문학은 타자, 이방인, 괴물들의 무덤 위에 구축되었다.

한국문학에 출현한 이 낯선 풍경은 일차적으로는 국가라는 단일한 실체 내지 가치가 무의미해지거나 소실되는 시점이 일국의 국경을 넘는 지평에서 의미화되고 있는데 따른 반응이다. 호미 바바에 따르면 근현대의 주체성은 고향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는 디아스포라적 측면을 그

1) 이해령, 『탈국경의 상상력과 21세기 한국소설의 역사지리학』,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333쪽.

2) 이해령 위의 논문, 333-334쪽.

3) 리처드 커니 지음, 이지영 옮김, 『이방인, 괴물, 타자』, 개마고원, 2004, 49쪽.

핵심으로 한다.⁴⁾ 바바는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와 관련해 대규모로 발생한 이주는 식민적·후식민적 근현대성의 근간이 되는 조건을 형성했으며, 이것은 근현대 주체들에게 “고향과 세계를 끊임없이 재설정”하기 때문에 근현대성은 고향에서의 친숙한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적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20세기가 발명한 부가가치 높은 상품인 속도는 시간과 거리를 소멸시켰다. 증기기관차, 자동차, 비행기, 군사 무기, 다양한 정보기와 통신 테크놀로지들은 지구 전체를 연결시키며 마치 그것이 단일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새로운 문명의 형태를 창조해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계의 현실은 글로벌화가 세계를 평등한 공동체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제국의 시기처럼 많은 디아스포라는 자유로운 이동과 유목이 아니라 착취와 소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비판이론가들은 “지구화의 시점을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경영으로 상정한다면 지구화는 인종과 민족이 강제로 산포되는 노동력의 이동”⁵⁾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냉전의 종식 이후 서구 일 세계 중심의 자본주의 경쟁의 단일한 세계시장이 괴물처럼 군림하면서 각 지역의 사회시스템이나 문화시스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테면 21세기는 마치 노동이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기실 노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더 가혹하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해온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은 사라진 게 아니라 착취와 차별의 공간으로 더욱 폭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재일한국인 디아스포라 서경식의 정의처럼 디아스포라는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글로벌리즘의 떠남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까지도 포함하는 용어, 즉 소문자 보통명사”⁶⁾로 존재한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

4) 박미선, 「우리 시대 디아스포라와 생존-지식능력: 흑인 여성 디아스포라 문화와 공동체」, 『문학수첩』 2006년 겨울호, 343쪽.

5)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 38집 2호, 2004, 193쪽.

면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새로운 트레드가 되었지만, 국경넘기의 단디한 감각의 다른 한 면에는 서글픈 ‘이산’의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한국문학에 출현한 탈국경의 상상력은 근대국민국가가 구축된 배타적 경계 속에서 소외된 타자들을 통해 그간 한국문학이 구축해온 폐쇄적인 틀을 허무는 한편으로 새로운 정체성, 대안적 이념을 협상함으로써 탈근대 주체의 탄생을 목도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자아낸다. 실제로 이들 작품들은 초국가시대가 만들어낸 달라진 삶의 풍경을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최근 한국문학은 신자유주의 이후 가속화된 자본의 전면적인 지배를 벗어날 만한 적극적인 시도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존재들, 특히 초국가시대의 평등주의 이념을 비웃는 지역주체들의 존재에 주목한다. 특히 탈국경 상상력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여성 이주자들은 그러한 기대를 강렬하게 만든다. 그간에 디아스포라 논의는 민족의 이산이라는 거대담론 속에서 재외한인의 민족적 정체성의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젠더 이슈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주의 젠더화’ ‘이주의 여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여성 이주자의 비중이 국내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이수자)⁶⁾. 여성들의 이주는 자유로운 인구이동이나 문화교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여성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가부장성과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빈번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환이 이루어지던 오랜 가부장제 역사 속에 여성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디아스포라 상태가 제국주의적 식민경영의 역사와 신식민주의 상황 등에 따라 여전히 여성의 삶에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주자가 반성적 매개로서 국경의 폭력성과 배타성을 비추고 고발할 것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좁은 의미의 국경을 넘어 적극적인 디아스포라 되기를 실천하면서 근대적 이분법을

6) 서경식 지음,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7) 위의 논문, 190쪽.

넘어서는 새로운 복수적 주체의 등장을 목도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게 한다.

찬드라 탈파트 모한티는 “고향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인가” 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국민국가의 반성과 탈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간 백석이나 이용악의 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고향 혹은 향수는 억압적인 근대성 극복이라는 점에서 저항의 언어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만약 여성처럼, 사회의 먹이사슬 속에서도 가장 하위의 계층들의 입장에서라면 고향은 향수의 대상이 아니라 갈등과 소외로 기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세계 출신의 학자인 프랫은 ‘고향의 정치학’을 반대하며, “안전한 공간에 대한 추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개념화가 너무 편협하게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재검토되지 않은 정의에 의존하여 고향, 가족, 국가를 설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는 고향이나 가족, 국가의 중요성이나 호소력을 무시하지 않고서도 공동체를 다르게 개념화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모한티 역시 고향은 개인이 가족적이고 안전한 경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장소이다. 고향에 대한 환상은 고향이 억압과 저항의 특수한 역사를 배제함으로써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본고는 탈북여성들의 국경 체험담을 담은 두 편의 소설이 약간의 시간의 거리를 두고 발간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 텍스트 속에서 한국 문학의 탈국경 상상력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간 한국 문학에서 여성들의 이동과 유목은 타락이나 추방을 의미했기 때문에 집과

8) 실제 공선옥은 『유랑가족』(실천문학사, 2005)에서 개발과 가난으로 끊임없이 이주하는 한국 내의 디아스포라들을 그리는 한편으로 근작 『명랑한 밤길』(『명랑한 밤길』, 창비, 2007)에서는 도시의 중산층 남성에게 체인 시골의 농촌처녀가 느끼는 계급적 박탈감과 한국의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의 고독을 병치시킨다. 실연한 한국 처녀는 밤길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부르는 한국의 사랑가요를 들으며, 그와 그녀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사랑과 연애의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동질적 존재임을 서글픈 연대의 감각으로 확인한다. 모한티의 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 지음, 문현아 옮김, 『경계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5.

고향을 떠나 이상적 공동체를 찾아가는 모험은 허락되지 않았다. 여성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남북이라는 위장의 도구를 빌려야만 했다. 21세기 여성 디아스포라들의 길 위의 이야기들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II. 에타게 ‘여성’을 찾아서-남한 남성의 탈국경 멜로드라마: 『짚레꽃』⁹⁾

정도상의 연작장편소설 『짚레꽃』은 탈북여성의 탈향과 국경넘기의 궤적을 담아낸다. 주인공 충심은 고향인 함흥을 떠난 후 연길, 도문, 해림의 신흥촌, 선양을 거쳐 마침내 남한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선택의 자유보다 선택의 불가피성에서 추동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동의 궤적에는 권력의 불균형이 새겨져 있다. 충심은 가난한 가계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병을 구완하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계획 혹은 소망은 쉽게 훼손된다. 국경 바깥에 발을 들이려는 순간 천대받는 탈북여성, 즉 세계시민이기는커녕 최소한의 인권도 주장할 수 없는 비천한 난민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충심이 서 있는 세계는 악무한의 폭력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그녀는 자율적인 자기존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품, 즉 교환가능한 육체-섹슈얼리티로 정의된다. 충심은 브로커에 의해 가난한 노동자 한족 남자에게 팔리고, 가까스로 한족 남자에게서 탈출한 후 한성안마에 머물지만, 동료의 배신으로 다시금 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후 충심은 몇 차례 팔려나가기를 반복하다가 남한 내 탈북자로 정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삶 역시 온전한 의미의 뿌리내림은 아님이 암시되면서 충심의 여정은 임시 종결된다.

평론가 정은경은 『짚레꽃』이 “국경 안팎으로 미만한 폭력과 비정함을 그리고 있”으며, “충심이라는 한 개인은 탈북자의 한 전형으로 또한 수

9) 정도상, 『짚레꽃』, 2008, 창비.

많은 난민과 유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그것으로 제시된다”¹⁰⁾고 밝힌다. 이러한 독해는 공감할만한 것이다. 비법월경자인 이들에게 국경은 최소한의 법이나 도덕조차 허용하지 않는, 즉 피도 눈물도 없는 하드보일드이며 충심의 굴곡진 생은 난민들의 가파른 삶의 경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충심의 비천한 여정이 여성을, 즉 교환 가능한 상품 혹은 살덩어리로 정의하는 가부장적 권력들에 의해 추동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성의 이주를 부추기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위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충심의 이동은 가부장적 자본과 여성의 불균형 관계에 의해 추동될 때 아니라, 충심의 삶을 추적하는 남성 서술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사화된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본고는 탈북여성이 통합된 자기의 감각을 상실한 진보주의 한국남성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의 이야기로 서사화되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최근 한국문학에서 탈북여성이 등장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려 한다. 이 작품은 기실 이념은 물론이고 생활을 돌보아 줄 아내마저 잃어버려 무기력해진 체제비판적 남한 남자의 트라우마와, 애정 대상의 상실을 거부 혹은 부인하는 우울증적 나르시시즘에 관한 이야기이다. 90년대 이후 세계체제의 재편으로 인한 북한의 위기상황은 한국의 체제비판적 지식인들이 더 이상 북한을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의 거점이자 반근대적 향수의 표상으로 전유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한, 특히 탈북여성은 총체성의 확보가, 근대적 주체의 기획이 불가능해진 전방 부재의 시대 속에서 재현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탈국경의 상상력은 세계체제의 재편 이후 달라진 시장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조망의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다시금 총체성을 거머쥐려는 야심찬 기획일 수 있다. 탈국경 상상력과 함께 90년대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춘, 계급, 민족, 국가 등 거대서사들이 다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을

10) 정은경, 『절레꽃』, 2008, 창비, 225쪽.

증명한다. 그런데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기획이 성(젠더-섹슈얼리티)의 내러티브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한국 남성의 탈국경 멜로드라마로 이름붙이고자 한다. 『절레꽃』은 “집안(集安)에 가서 여자를 찾아야 했다”(「겨울, 압록강」, 8쪽)라는 첫 문장이 암시하듯이 여자 찾기 플롯, 즉 잃어버린 여자를 찾아가는 내러티브를 골자로 취하고 있는 연작장편소설이다.¹¹⁾ 서술자인 ‘나’는 중국의 ‘집안’에서 이년 전 하루 밤 그의 길동무가 되어 준 여자, ‘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조선 출신의 못생겼지만 약간 귀염성이 있는 중년 여자를 찾으려 한다. 그가 이름도 모르는 그녀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까닭은 현재 그의 삶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 전 아들을 잃는 참척의 고통에 경험한 뒤 의식의 해리상태에서 아들의 죽음이 돌연히 재귀에 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해소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린 우울증적 주체이다.¹²⁾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적 반응은 아들이 죽기 이전, 즉 이미 이년 전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연원이 깊다. 그가 ‘집안’에서 만난 북조선 여자를 그리워하는 까닭은 반체제 지식인으로서 그간 애정의 대상으로 여겨온 북한에서 느낀 소외감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 속 더 깊은 곳에 자리한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11) 『절레꽃』은 「겨울, 압록강」, 「함흥·2001·안개」, 「눈지」, 「풍풍우우」, 「소소, 눈사람 되다」, 「얼룩말」, 「절레꽃」이 실린 연작장편인데, 주인공이 탈북여성 중심이 아니라, 그녀를 좇고 갈망하는 ‘나’의 내면과 자의식 그리고 정서 구조가 이야기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12) 프로이트에 따르면 슬픔(애도)과 우울증은 모두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데 따른 반응으로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낙담’,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상실’, ‘모든 행동의 억제’ 등의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슬픔이 특정한 대상에 쏟아 부었던 애정이 그 대상의 소멸과 함께 일시적으로 부유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 정상적인 감정인 데 반해, 우울증은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의 내부에 이 대상을 환상적으로 설치하면서 감정적 연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심적 현상이다. 슬픔의 경우 세계가 빈곤해지고 공허해지는 데 비해 우울증은 자아가 빈곤해진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다르다. 프로이트 저, 윤희기 역,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는 그것이 발생한 최초의 장면을 추적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년 전 ‘불청객’이었지만 북의 ‘박’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2005 국제고구려학회’에 참석차 중국에 가지만 ‘박’과의 대화는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 진심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제야 비로소 알았다”라고 말할 만큼 절망감을 안겨준다. ‘박’과의 소통 불가능성이 단순히 무시해버려도 될 정도의 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사건이 “남한에서는 주사파로 몰려 오래도록 왕따를 당해왔는데, 북에서는 악질반동이 되는 순간을 자주 감당해야 했”(15쪽)던 이윤배반적 상황을 비감하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박과의 만남은 그간 남한 내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주인공의 그리움 혹은 향수 대상이었던 ‘북한’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무참하게 버려진 듯한 상실 혹은 비애의 감정을 일깨운다. 참담한 분노와 슬픔은 급기야 주인공을 학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이념과 체제, 국경과 의식의 밖에서 압록강이 도도하게 흐르며 존재했다”(17쪽)고 생각하며 고독해진 마음을 위로함으로써 애정대상의 상실로 인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때 마치 그의 애절한 소망에 화답하듯 환영처럼 밤의 안개 속에서 “북조선 여자”가 등장해 하룻밤의 길동무가 되어 준다. 이 ‘북조선 여자’는 한국의 죄과지식인인 남성이 오래도록 품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젠더화된 욕망과 상상의 구현물이라 할 수 있다. 여자는 북한의 만포에서 배구선수와 연애해 결혼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고 폭력을 행사하자 이혼하고 지금은 중국에서 혼자 허드렛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명절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게 낙인 초라한 중년이다. 여자는 “다른 여자랑 사는 남편인데, 증오하진 않아요?”라는 ‘나’의 질문에 “증오라니요? 첫남자인데……밉지 않아요.”라고 답할만큼 순수하고 모성적이다. 여자의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콧등이 시큰하게 아파”을 정도로 “불현듯, 못난 이 아낙네가 사랑스러웠다”(21쪽)고 고백한다. 이는 ‘나’에게 북한이 순박하고 모성적인 여자로, 즉 젠더화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

음을 암시한다. 소설은 남과 북의 관계를 로맨스와 섹슈얼리티의 내러티브를 빌어 서사화한다. 이는 ‘나’의 북한여자 찾기가 오랜 시절동안 신념과 열정의 대상이었던 이념적 지향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함으로써 인격의 붕괴 상태에 놓인 체제 저항적 지식인의 주체성을 복구하기 위한 남성 멜로드라마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나’는 잃어버린 여성을 되찾아 다시금 위기에 처한, 혹은 그간 조금씩 파국을 향해 치달던 나의 남성성 혹은 주체성을 복구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나’의 잃어버린 여자 찾기의 여정은 순조롭지 않다.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이내 “첫남자가 밋지 았다던 촌아낙네의 풋풋함을 끝내 찾지 못”하고 여자에 관한 낭만적인 기억마저 위협하는, 현실의 북한여성 ‘충심’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의 ‘로맨스’에 대한 기대는, ‘나’와 ‘집안’으로 함께 동행했던 한성안마 소속의 안마원이자 출장 섹스 워커인 미나가 자신이 중국인 ‘메이나’가 아니라 ‘탈북자 충심’임을 고백해 올 때 파국을 향한다. 미나-충심의 고백은 ‘나’의 북한에 대한 ‘향수의 기억’을 붕괴시킬 만큼 위협적인 것이기에 고통을 안겨준다. 북한 여성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순결한 로맨스와 추악한 성매매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성 안마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나’ 역시 그 한국인 사업가와 다를 바 없는 수컷이 아닌가 싶어 자꾸만 망설여졌다. 아니 나는 정확히 수컷이었다”, “미나를 더 이상 기만하고 싶지 않았다”(27쪽)는 고백은 ‘나’가 자신의 미나(충심)-북한에 대한 욕망의 허위를 자각한 증거이다. 이 장면은 재현의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이념 혹은 보편 가치의 상실 혹은 오인의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한국의 진보 지식인 혹은 진보문화이 당면한 위기를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문체적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나’의 국적, 계급, 젠더 위치의 개입없이 탈북여성 충심의 디아스포라 체험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절레꽃』은 충심의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충심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충심은 남한 사람이자 남성인 ‘나’의 주체위치를 넘어 세계체제에서도 가장 주변부 국가인 북한의 난민이자 여성 젠더라는 취약한 주체위치를 뚫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서술자가 탈북여성으로 비친한 삶을 전전하는 충심, 즉 현실로서의 북한과 그가 이년 전 집안에서 만났던 향수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즉 기억(상상-환타지-향수)으로서의 북한 사이에 놓인 틈 속에서 반성적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탈북여성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의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가가 탈북여성 이야기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탈북여성에 대한 관습화된 재현을 넘어서는데 실패한다. 한 남한 지식인 남성의 잃어버린 애정 대상으로서 북한을 여성 젠더로 표상하고, 남근적 욕망의 경계 속에서 여성을 찾는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심의 이야기가, 서술자인 주인공이 ‘집안’의 여자를 만난 이후 상상하던 로맨스 상상력의 연장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을 증명한다.

“흐르는 강물의 중간을 국경선으로 정해놓는 바람에 삶의 공동체와 순환이 깨져버린 만포와 집안의 아득한 풍경 속에 나는 오래오래 서 있었다. 그 사이 미나는 압록강으로 내려가 물에 얼굴을 비추며 앉아있었다.

나는 혼자 상상했다.

고구려 시절,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으리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며 연애하고 혹은 연애에 실패하며, 상처받고 상처주며, 노동과 음식을 나누고, 어린것들을 결혼시켜 자손을 낳으며 살았을 터였다. 저 강은 국경이 아니라 함께 빨래를 하고 고기를 잡고, 논에 물을 대는 공동의 재산이었으리라. 강 건너편의 농부 총각과 고구려왕이 살았던 국내성의 어느 고관집 하녀인 언청이는 아내가 되어 어여쁜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웃었을 풍경이 기록영화의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차르륵차르륵 소리를 내며 떠올랐다.”(「겨울, 압록강」, 24-25쪽)

위의 인용 부분은 ‘나’가 북조선 여자를 찾지 못하자 쓰라린 마음을 보상받으려는 듯 상상해낸 내용이다. 여기서 통일, 즉 국경을 허무는 일은 민족의 오래된 과거를 복구하는 것이자 계급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이는 남과 여의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로 서사화된다. 충심의 탈북 이야기는 국경으로 인해 로맨스의 꿈이 불발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함흥 · 2001 · 안개」에서 소녀인 충심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입학이 확실시되는 수재인 충성오빠 대신에 싸움이나 일삼아 불량배 취급 받고 체구도 왜소한 재춘 오빠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지만, 두만강 부근에서 인신매매 당함으로써 재춘과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재춘은 충심을 구해내려다 국경 경비원의 총을 맞고 사망하고, 충심은 국경을 넘자마자 팔러가는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국경은 죽음과 폭력으로 충심의 인생에 끼어들어 첫사랑을 살해하고 충심을 별거벗은 생명의 비천한 인간, 즉 호모 사케르로 내몬다. 공동체에서도 주변부 사내인 재춘과 충심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북한의 가난이자 국경의 폭력이다. 충심의 탈향 이후의 이야기는 로맨스가 불발된 자리를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디아스포라가 채워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서사의 중심은 충심의 육체-섹슈얼리티가 겪는 수난의 여정에 가 있다. 탈향 이전부터 충심과 재춘의 연애는, 재춘과 하룻밤 잠을 잘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충심의 고민과, 차라리 주어버릴 걸이라는 후회에 짓눌린 ‘성’적인 것이었다. 이렇듯 충심의 탈국경의 여정이 성적 수난사로, 순결한 로맨스가 파국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초점화됨으로써 이 작품은 남성중심의 멜로드라마로 한정지어 버린다. 서술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순결하고 소박한 삶의 상징이자 욕망 대상으로서의 여성, 즉 북한이 탈국경의 과정에서 더럽혀졌다는 데 있다.¹³⁾ 즉, 그의 우울은 애정의 대상이 더럽혀지고 훼손된 데 따른 무

13) 정현백은 북한여성들의 모습은 순종, 인내, 정절, 조신함을 미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성으로 표상되는데, 이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한의 남성들에게 서구화되고 산업화되는 와중에서 남한이 잃어버린 전통적 여성성을 재발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는

력감과 상실감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은 순결한 북한에 대한 서술자의 소망충족적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충심의 남한행을 빈번히 지연시키고,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녀의 거주를 불안하게 만든다. 온갖 간난신고를 거친 후 충심은 결국 선교사 브로커에 의해 남한으로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조선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김정일은 나쁜 사람이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자유를 정말 원해요. 조선은 지옥이고 많이 굶었어요. 밥도 많이 먹고 싶고, 자유를 원해요. 도와주세요.”라는 굴욕적인 내용의 편지를 쓴다. 여기에는 탈북자들의 당면한 현실이 이념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는 점과 이러한 신념의 배반을 강압하는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충심은 정작 남한 국민이 되어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스스로 이를 거부한다. 그녀는 한성안마 소속의 섹스워커인 시절에도 남한 손님과의 연애를 거부했던 것처럼, 남한 정착 이후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만난 한국의 노동자 ‘최’의 구애를 거절하는데, 이는 “스물아홉번을 만나는 동안에 충심은 인간의 위신을 지키려 무척 애를 썼다”(149쪽), 자신이 노래방 출장성매매 도우미라는 것을 알고 있는 최에게 “뻔뻔해질 수 없어서”(204쪽)라는 서술이 암시하듯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설명된다. 충심이 노래방의 섹스워커로 만난 첫 노총각 손님은 구애의 손을 내밀지만, 충심은 그의 순결한 마음을 더럽힐 수 없어 오히려 외면한다. 이는 충심의 이야기를 결합이 지연되는 로맨스로 그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로맨스 모티프는 신분이 낮은 여자가 자신보다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 구원을 받는 스토리의 반복으로서, 역설적으로 남한 남성을 탈북여

점을 주목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북한 여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추출한 민족적 동질성은 권위주의적 위계질서나 가부장적 문화를 내면화하면서 ‘가부장적 통일’을 만들어낼 위험이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획일주의 문화를 유포해 개성을 지닌 개인이 숨 쉴 공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북한 여성,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성과 사회』 12호, 창비, 2001, 84-85쪽.

성의 구원자로 위치짓는 것이다. 무엇보다 충심의 이러한 순결한 태도에
는 서술자의 소망충족적 환상이 담겨 있다.

이렇듯 로맨스 플롯이 우세한 가운데 이주여성들의 젠더와 섹슈얼리
티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 성찰되지 못한다. 출장 섹스워
커인 충심은 서울의 위성도시의 공단근처의 노래방에서 한국 내 하위계
층 남자들의 성서비스 노동에 종사한다. 국경이 무너진 사회에서 이주여
성들의 노동은 주로 성적 서비스와 관련되는데, 일례로 생존수단을 얻는
 댓가로 한국의 사회적 박탈자들인 하위계급 남성들에게 값싸게 육체를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남성들의 사회적 불만을 적절히 배출함으
로써 공적 영역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주
여성의 성노동은 단순히 개별적 사건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지
구화, 민족국가, 성별의 역학관계를 시사한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러한
국경의 역학관계를 포착하는 대신에 탈북여성 충심을 비록 육체는 더럽
혀졌지만 정신의 순결 혹은 자존심을 허물지 않았으며, 비록 쫓겨다닐지
언정 훼손당하지 않은 주체적이고 품격있는 인간의 표상으로 재현한다.
이렇듯 당찬 탈북여성 충심은 남한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나르시시즘을
일시적으로 복구시켜주는 주물(呪物, fetish)이기도 할 것이다.

Ⅲ. 초국가적 다문화주의와 차이의 낭만화 : 『바리데기』¹⁴⁾

『바리데기』의 발간으로 『손님』(2001), 『심청, 연꽃의 길』(2007)과 함께
황석영의 ‘동아시아 3부작’이 완성되었다. 이 작품들은 작가의 방북(1989
~1993)이후 구상의 핵심에 다가가게 함으로써 황석영 문학을 재조명할
새로운 시야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키워드 중 하나는 아마도 디아

14)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스포라(diaspora)의 역사가 될 것이다. 실제로 황석영은 초기 소설에서부터, 강제적으로든 선택적으로든 고향을 떠난 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왔는데¹⁵⁾ 『바리데기』는 그러한 도정의 결산이자 새로운 글쓰기의 실험이다. 『바리데기』는 천애고아인 바리가 탈북이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세계사의 가파른 흐름에 휘말리면서 천신만고 끝에 영국으로 밀입국해 엄마가 되는 이야기, 즉 여성으로서의 성장담이다. 즉, 이 작품은 한 주변부 소녀의 어른되기-여성되기의 과정을 담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90년대 이후 새로운 세계체제가 재편된 이후의 지구촌 현실을 모자이크처럼 펼쳐 보임으로써 현실의 지형도를 그리려는 야심찬 계획을 엿보인다. 바리의 탈국-중국-밀입국-영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탈북자의 급증 추세, 9.11 테러사건, 관타나모 수용소의 이슬람에 대한 인권 유린,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 영국의 지하철 폭발사건 등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초국적 자본주의가 야기한 대규모의 디아스포라 현상과, 국제적인 양극화 속에서 발생한 새로운 분쟁과 강요된 굶주림의 세계사가 펼쳐지고 있는 등 서사의 무대는 매우 넓다. 마치 씨줄과 날줄을 맞물려 직물을 완성해가듯 작가는 탈북 소녀 바리의 삶을 세계사의 심부에 위치지음으로써 바리가 한 사람의 여성이 아니라, 세계체제의 주변부인들의 상처와 슬픔을 애도하며 생명의 약수를 길어 올릴 사제로 위치 지으려 한다.

작가는 비천한 탈북소녀를 세계체제가 주변부인에게 가하는 상처와 억압을 극복하고 생명의 문화를 일구어 갈 생명의 사제, 즉 신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비천한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15) 예를 들어, 빼어난 단편미학을 선보인 「삼포 가는 길」(1973)은 고향에서 내몰린 부랑노동자의 우울을 시대의 정서로 구조화한다. 좀 더 멀리로는 명분 없는 전쟁에 동원되었다는 깊은 수치감으로 자기와 고향(국가)을 성찰하는 「탑」, 류의 베트남 소설도 있다. 35년에 이르는 창작 생활 동안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주자가 되어 끊임없이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초국적 자본주의체제가 재편된 이후 주변부 삶의 심층을 탐색해 왔다는 점에서 황석영은 독보적인 작가임이 분명하다.

여자 아이가 간난신고 끝에 아버지 오구 대왕을 살릴 약수를 구해 고귀한 존재로 등극한다는 스토리를 빌려온다. 또한 무속에서와 같은 초자연적인 환상성을 적극 도입하는 등 그간 한국근대문학이 선호해왔던 규범에 거리를 둬으로써 동양 혹은 한국적 미학을 선보인다. 무엇보다 이 미학적 실험의 중심에는 ‘여성문화’ 혹은 ‘여성(성)’이 새로운 윤리의 가능성으로 자리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무속은 주변부인들, 특히 여성들의 하위 문화이며, 영매는 그러한 문화의 중심에서 사회의 상처와 고통을 떠맡은 사회적 약자 혹은 여성들의 대변자이다. 그리고 굿은 인간이 겪은 극한의 고통을 중계해 멧힌 마음을 풀고 산 자와 죽은 자를 화해시키는 제의로, 이른바 대립과 투쟁 혹은 경계 구축에 익숙한 ‘남성적’ 가치관 대신에 용서와 화해 같은 ‘여성적’ 가치관을 새로운 윤리로 제시한다. 작가는 ‘큰 어미’가 되어 이 재난의 세기를 연민과 용서의 해원곳으로 감싸 안고자 한다. 바리가 영매가 되기 위해 치루는 굿의 절정에서 작가는 저승배에 탄 한 무리의 억울한 사령들-끓어죽은 아이, 부르카를 쓴 여인, 피 묻은 군복을 입은 청년 등-을 등장시켜 그들을 연민하는 한편,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세계의 재난을 빚어내는 대립을 무너뜨리고 화해할 것을 유도한다. 굿은 解冤과 祈願의 연회인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인공인 탈북소녀 바리는 한국문학의 세계무대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도구화된 인물이다. 대대로 만신을 낸 가계에서 태어난 바리는 신이(神異)한 능력을 갖춘 모성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염병을 앓은 후 동물은 물론이고 허공을 떠도는 귀신들과 소통한다. 발 마사지사가 된 후에는 발을 통해 타인들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순간을 목도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진다.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바리는 여성적 윤리의 가능성을 담지한 인물인 것이다. 언뜻 보면, 바리는 영매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 영매가 세상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대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비천하고 억눌린 삶의 경험 때문인데, 바리는 출생시의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밀입국의 간난신고와 첫 딸을 잃는 참척의 고통마저 겪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리는 성숙한 영매가 아닌, 적응이 빠른 재주 많고 착실한 ‘소녀’처럼 여겨진다. 바리는 세상의 어두운 심연을 통과한 뒤 획득한 성숙한 여성이라기보다 거치른 서사들이 통과해 가기 위한 배경처럼 여겨진다. 바리는 내면성만이 아니라 육체성마저 부재한 허깨비 같은 인물이다.¹⁶⁾ 『심청, 연꽃의 길』에서 심청이 ‘팝콘 비너스’였던 것처럼¹⁷⁾, 바리 역시 화해의 연대를 향한 작가의 기원이 만들어낸 도구적 인물이다. 폭력을 겪은 육체가 정신을, 혹은 끔찍한 환경이 자아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그녀들이 강인해서가 아니라 모성적 자궁 외에, 개성과 내면을 허용 받지 못해서인 듯 여겨진다.¹⁸⁾

작가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되풀이되는 전쟁과 갈등의 새 세기에 문화와 종교와 민족과 빈부 차이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어떤 다원적 조화의 가능성을 엿보고 싶”(『바리데기』, 295쪽)었다고 창작의 동기를 밝힌다. 이는 단순히 세계체제의 어두운 그늘을 비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디아스포라 되기를 시도함으로써 일국의 경계를 벗어나 진정한 지구촌이 실현되기 소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듯 ‘다원적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리가 정착하게 된 영국의 램

-
- 16) 『바리데기』는 마치 파올로 코엘류 류의 고도로 세련된, 순문학 상업주의를 흉내 내고 있는 듯 보인다. 현대의 바쁜 지식대중들의 교양과 취향과 만족시키려는 듯 이 작품집은 스토리의 무거움과 복잡함에 비해 분량이 적은 한편으로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가볍고 이국적으로 담아내는 고도의 상업적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녀가 그려진 예쁜 책 표지와 동화적 모티프 등은 독자의 상상력을 압도하는 탈북난민소녀라는 존재의 불편함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
- 17) 창부가 된 어린 심청은 거둬되는 집간과 능욕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 받지 않는다. 이는 지루하리만큼 세밀하게 묘사된 동아시아의 근대사를 흥미로운 볼거리로 만들고 독자의 죄의식도 덜어준다.
- 18) 황석영 소설의 남성 주인공들은 관념적이거나 감상이 과도하게 여겨지리만큼 고녀에 찬 내면성을 지닌데 반해 바리는 심청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내면이 약화된 혹은 부재한 듯 보이는 인물이다. 이러한 점은 바리가 세계문학의 진출, 즉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탄생된 다소 도구화된 캐릭터임을 암시한다.

버스 구역의 연립주택, 즉 검고 푸르고 노란 얼굴들이 모여 사는 다인종 장소이다. 마치 한국의 6-80년대에 놓여준 탈향자들이 도시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변두리를 주거단지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북한 사람인 바리와 파키스탄인 압둘 할아버지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폴란드, 불가리아, 태국인 등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자들이 서로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며 모여 사는 초국가시대의 다문화 공동체다.

소설의 중후반부에서 작가는 생존을 위해 자기 땅을 떠나 영국으로 들어온 다인종들, 특히 비법월경자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탓에 받는 부당한 사회적 대접과 상시적인 추방 위협 그로 인한 불안한 삶을 담아냄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성찰하게 한다. 그러나 영국 주변부의 다가구 지역에서 이루어낸 다국적 다인종들의 조화로운 동거의 모습 속에서 주변부인들이 공존공생활 가능성을 엿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사람의 문화와 전통을 배타시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는 초국적 다문화주의의 완벽한 실천이자 모범적 사례이다. 바리의 시할아버지이기도 한 파키스탄인 압둘은 영국국적을 취득했지만, 자기 나라의 음식을 먹으며 자기의 의상을 입고 자기의 종교와 전통문화를 지키며 살아간다. 특히 작가는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에 의해 이슬람과 북한이 세계의 악의 축으로 ‘발견’된 이후 받는 박해를 의식한 듯 이들 주변부 문화의 고유성을 옹호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제국의 유색인종 디아스포라에 대한 동화 정책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¹⁹⁾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끼어든 낯선 이들을 향한 경멸적인

19) 김택현에 따르면 서구 유럽은 이민자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프랑스의 경우 식민주의자들은 계몽사상의 보편주의적 휴머니즘을 끌어와 식민지민들이 법적 행정적으로 프랑스인과 동등한 시민이지만 그들의 문화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이고 비이성적이므로 그들에게 프랑스의 우수한 문화, 언어, 종교를 전파하여 프랑스인과 동등한 문명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는 동화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같은 정책은 식민지인들에게 프랑스의 선진적 교육제도도 문화시설을 똑같이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너그럽고 공평한 것이었지만, 그것들

시선에서 모멸감을 느끼면서 낮은 공간에 접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다시 귀환하지도 못하는 삶을, 즉 뿌리는 있되 뿌리가 없고 뿌리를 내리려 해도 쉽게 뿌리가 박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쉬운데, 문명은 이들의 전통 문화를 문명화 과정에서 뒤쳐진 것, 즉 근대적 시간성으로 진입하지 못한 야만이나 미개와 동일시함으로써 주체성을 훼손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서구의 이주민에 대한 국가 정책은 동화가 아니라 다문화주의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발상법은 때늦은 것일 뿐 아니라 초국적 자본주의의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다문화주의의 기만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로이 히사시는 “문화가 융합이나 통합, 각각의 독자성을 서로 존중하는 형태로 분리되거나 자립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성립시키는 근원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며, 그것이 “시장의 논리와 경제 코드가 공존하기만 하면(곧 동일한 하나의 세계시장에 귀속되고 있다는 점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이외의 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²⁰⁾ 증거라고 지적한다. 김택현 역시 “디아스포라 공간에서 마주치는 문화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모두 종별성을 갖고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는, 즉 문화들의 다양성과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절충주의적 다원주의로는 불가능하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하는 공간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맹목이며, 문화의 정치를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문화화하는’ 주장”²¹⁾임을 지적함으로써 문화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얻으려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포기할 것을 식민지민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식민지 문화와 프랑스 문화의 차이를 강제적으로 동일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가장 폭압적인 식민지배 방식 중의 하나였다. 김택현, 「디아스포라와 문화혼종」, 『문학·판』, 2006년 봄호, 열림원, 176쪽.

20) 무로이 히사시, 「현대의 知的 상황과 예술」, 『미술사논단』 20호, 한국미술연구소, 544쪽.

지적한다.

이 작품은 기실 국적만 취득한다면 영국사회는 유색인종과 외국인들에게 이상적인 정착지가 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등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에 대한 예리한 비판의 시선을 보여주지 못한다. 바리가 억압적인 정권과 지독한 가난으로 점철된 공산국가를 벗어나 기회의 땅인 영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일구어가는 이야기로 읽혀질 소지도 많다. 소설은 바리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불법 이민자로서 그 위치가 불안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녀가 동아시아의 가난한 유색인종 디아스포라로서 겪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국적 취득의 유무만이 이들의 유색인종 디아스포라들의 자부심과 불안의 절대적 근거로 작용한다. 바리의 남편인 알리는 “나도 영국인이라구”(161쪽)라고 당당하게 내세우며, 비록 저급노동에 종사해왔지만 영국국적을 취득한 압둘 할아버지는 국적을 가진 사람의 여유있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바리는 파키스탄인이지만 영국국적을 소유한 알리와 결혼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고 영국사회에 이민자로 당당히 편입될 것이 암시된다. 바리는 자본주의가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정직함, 유순함, 진심을 다하는 노동, 소비자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중한 보살핌 등의 자질을 갖춘 양질의 노동력,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엿볼 줄 아는 신이한 능력 등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자본을 축적해간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적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고, 영국사회에 대한 이주민들의 당당한 요구일 수 있지만, 국경을 넘는 대규모의 이동이 감춘 자본의 폭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백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문화정체성 정치의 한계이기도 하다. 바리에게는 대규모의 이동과 추방을 부추기는 추악한 자본주의를 성찰할 능력도, 초국적 자본주의에 침을 뱉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다문화주의가 문화를 지역이나 민족과 정확하게 중첩하는 단

21) 김택현, 앞의 논문, 179쪽.

힌 구조로 보는 문화 본질주의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정형화된 관념 혹은 표상을 반복함으로써 근대적 이분법의 경계를 흔드는 복수적 주체들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위계를 재설정했을 뿐 서양/동양, 남성/여성, 이성/감성, 의식/무의식 등 근대적 이분법을 여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분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탈북 여성 바리로 표상된 여성-동양에 대한 표상은 오리엔탈리즘의 익숙한 반복에 가깝다.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낯선 것, 신비로운 것으로 상정하는 가운데 특히 동양여성의 이미지를 성적인 신비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접근가능하고 유순한 몸을 가진 존재로 표상해왔다. 이는 동양여성에 대한 익숙한 کلی셰들, 즉 신비로운 섹슈얼리티, 모성적인 이타성 등의 표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바리는 순결하고 순응적이며 이타적인 동양 여성의 유아성과 모성성 모두를 구현한 캐릭터이다. 바리는 경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혹은 성격과 내면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여겨진다. 앞서 말했듯이 바리가 인간 내면의 고통과 비참을 껴안는 영매로 타고났고, 바리의 영매되기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영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가의 한국전통문화, 즉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차용해오는 방식의 상투성은 비판받을 필요가 있다. 무속은 히스테리, 우울증, 귀신들림의 상태에서 가부장적 공식문화에 반격을 가하는 여성들의 반역의 문화이자, 공감의 눈물을 매개로 영매와 여성 관객들 간의 은밀한 연대가 형성되는, 여성 공동체 문화이다.²²⁾ 즉, 영매는 가부장제의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는 전복적이고 탈규범화된 여성이다. 그러나 작가는 무속의 젠더에 깃든 전복적 의미는 지워버린 채 그것을 모성적 끌어안음으로 순치시킨다. 이 소설은 외국인이 상상하는 동양에 대한 적극적

22) 서지영, 「해원(解怨)과 축원(祝願): 생산의 기원으로서의 몸」, 『여성과 사회』 15호, 2004, 창비, 176-192쪽.

인 응답이며, 우리 것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끼어들어야 한다는 지구화 시대 한국인들의 강박관념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해낸다. 예를 들어 이슬람과 제국을 모두 공평하게 꾸짖는 대목은 이슬람이나 북한 문제가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여유있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걸으로는 평화롭게 씻은 듯이 깨끗한 백사장을 넘겨다본다. 저편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 복장을 하고 경전을 쳐들고 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개신교 목사, 검고 긴 가운을 걸친 카톨릭 사제, 흰 천을 감고 어깨를 드러낸 힌두의 바라문, 장옷에 머리에는 흰 모자를 얹은 무슬림 이맘, 노란 가사를 걸치고 머리를 박박 깎은 불승, 턱수염에 검고 둥근 키와 모자를 쓴 유대교 랍비, 그들은 모래 위에 가까스로 서서 제각기 알 수 없는 율법의 판관이란 판관은 모두 모아놓았는지 가발과 모자와 가운과 검정색 흰색에 이르기까지 모양도 엇비슷하다. 각자 다른 말과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괴상망측한 주문으로 들린다.

그들은 목청껏 떠들지만 서로가 남의 말을 삼켜버리고 더욱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뒤섞여서 아무런 의미도 전하지 못한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을 부릅뜨고 한손에는 경전을 쳐들고 한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느라고 연방 휘젓는다. 그러나 모랫바닥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다. 그들은 허우적거리며 발목에서부터 차츰 아래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허리 그리고 가슴 목에까지 빠지다가 머리가 사라지고 허우적거리는 팔이 보이다가 완전히 모래만 남고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나면 어느결에 다시 솟아오른 육신들이 나타나 끊임없이 다투고 떠든다.”(271-272쪽)

이 긴 인용문은 바리가 자신의 첫딸을 잃고 난 후 의식의 해리 상태 속에서 본 세상, 즉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연상시키는 분쟁의 세계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바리는 땅아의 의례 속에서 공수를 받아 영매로 태어난다. 그런데, 이 장면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앓

는 세계에 대한 점묘라기보다 똑같은 크기의 욕망을 가진 자들의 소란스러운 다툼을 연상시킨다. 각각의 차이를 무화하는 방식의 재현이 이루어짐으로써 초국적 자본에 의해 부추겨진 폭력의 악덕과 그로 인해 제 3세계 주변부인이 겪는 고통과 울분이 간과되고 만다.

IV. 결 론

한국문학의 국경 횡단, 탈국경 상상력은 사이드가 말했던 바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오리엔탈리즘 이론에 따르면 식민중주국(주체)은 자신을 식민지와 구별함으로써 정체성을 찾는다. 식민중주국은 문명/자연, 문화국가/미개국가, 문화인/원시인, 선진국/후진국 등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자신과 ‘다른 것’으로 식민지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이분화는 동양인들에게까지 내면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식민 지배의 당사자였던 국민들뿐 아니라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의 국민들까지도 과거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상흔, 모순된 제도와 사회 구조, 불평등한 국가간 경제, 감정적 오류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서의 외국의 차별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는 이러한 내면화된 이분법이 병리적으로 표출된 징후이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주의 작가들의 국경에 대한 상상력 역시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의 이분법, 지배자 주체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최근 한국의 진보주의 문학은 이국을 그리고 여성을 타자화해 선취하고 점유한다. 레이 초우의 중국문학사의 비판의 요지를 흉내내 말하자면, 과거 남성작가들은 여성적 목소리로, 감수성, 눈물, 정절 등 여성적 자질을 차용해 언어의 진정성과 깊이를 확보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 남성작가들은 신여성, ‘양공주’, 여대생 등 ‘신’여성들의 삶에서 모더니티

의 본질을 발견하면서 이야기의 질료로 삼고 그녀들의 욕망과 그것의 실패를 통해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기 주체를 정립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은 국내가 아니라 이방의 여성들을 통해 분단이후 동아시아를 그리고 세계 체제 이후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다시금 이들의 계급, 젠더를 점유하며 타자화한다.²³⁾

이들은 탈북여성을 마이너리티로 적극 호명함으로써 이들 하위주체들이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의해 짓밟히는 현실을 비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능동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확정지어 버리게 된다. 『짚레꽃』에서 탈북여성의 국경넘기는 수난사라는 진부한 형식을 반복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바리데기』에서 바리라는 마이너리티는 한국이라는 변방의 디아스포라 지식인인 황석영 문학의 타자이다. 유색인종 여성 마이너리티는 한국의 지식인이 세계문학 안으로 끼어들어가기 위한 좋은 매개체에 분명하다.

디아스포라는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즉 건설을 위한 열망을 안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 얼터너티브한 에너지, 분산됨의 역동적 파동을 찾는 참신한 실험이 될 수 있다. 국경을 계급, 젠더, 민족의 중첩된 모순의 공간으로 포착하고, 모국은 물론 제국(지배국)에 대해 탈동일화(disidentification)의 입장을 취하면서 디아스포라적 주체의 전복성의 최대치를 보여줄 수도 있다. 특히 초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이동을 부추기는 제국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편으로 특정 지정학적 지리에

23) 레이 초우의 글의 원본은 다음과 같다. “중국문학사는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남성의 역사였다. 과거에는 남성작가가 여성의 목소리를 취하여 ‘여성적인’ 스타일의 글을 썼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남성작가가 새로운 사회적 ‘내용’이자 신기한 문학적 소재인 여성에 매료되었다. 그러므로 마오쩌둥이 앙드레 말로에게 “중국 여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남성이 (중국의 전통과 서양에 대해) 마이너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선취하고 그것이 자신의 지위라고 주장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담론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여성은 마이너 중의 마이너이며, 중국남성이 선점한 여성에 대해 타자적 존재이다.(161쪽)” 레이 초우 지음,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구속되지 않는 복수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국경은 물론이고 젠더, 계급, 성적 취향 등의 무수한 경계들을 가로지르고 해체하는 유목적 주체의 출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상력이 가능하려면 이방인 혹은 이주여성을 나르시시즘 적으로 동일시하려는 유혹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왜곡과 훼손없이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연민과 공포 혹은 신비화하는 재현의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차자료

정도상, 『찢레꽃』, 창비, 2008.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2차자료

김택현, 「디아스포라와 문화혼종」, 『문학·판』, 2006년 봄호, 열림원, 171-183쪽.

박미선, 「우리 시대 디아스포라와 생존-지식능력: 흑인 여성 디아스포라 문학과 공동체」, 『문학수첩』 2006년 겨울호, 81-333쪽. (찾아볼 것)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문화혼성성·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 38집 2호, 2004, 189-222쪽.

이혜령, 「탈국경의 상상력과 21세기 한국소설의 역사지리학」,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333-362쪽.

서경식 지음,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서지영, 「해원(解怨)과 축원(祝願): 생산의 기원으로서의 몸」, 『여성과 사회』 15호, 2004, 창비.

정은경, 「키치에 맞서는 비정성시」, 『찢레꽃』, 2008, 창비.

정현백, 「북한 여성,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성과사회』, 창비, 81-103쪽.

레이 초우 지음, 장수현·김우영 역,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리처드 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괴물, 타자』, 개마고원, 2004.

무로이 히사시, 「현대의 知的 상황과 예술」, 『미술사논단』 20호, 한국미

술연주소, 541-552쪽.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 지음, 문현아 옮김, 『경계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5.

프로이트 저, 윤희기 역,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Abstract>

Gender Politic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Reproduction of Diaspora - Focused on 『Wild Rose』 and 『Baridegi』

Kim, Eun-Ha

Recently, imagination of post-border is superior in Korean literature. It describes portraits of the other, who are alienated by exclusive borders, built by the modern nation-states. This flow breaks down the closed outline of Korean literature, and negotiates new identity and new alternative ideology.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reate a new post-modern subject. Especially, symbol of female defectors gather the expectation. It implies that female defectors, as media of introspection, would expose the violence and exclusiveness of the borders, and become positive Diaspora. They would get over modern dichotomy, and become new plural subjects. In Korean literature, female's migration or nomadism have been defined as depravity or deportation. Therefore, they were not permitted to look for ideal community, away from their homes. Females had to borrow men's clothes for disguise, in order to start off on a journey. Then, what would journey of 21st century's female Diaspora show?

However, in 『Wild Rose』 written by Do-sang Jeong,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re shown as 'the others' that form progressive Korean male subjects, who lost their senses united. After 1990's, North Korea had a crisis due to reorganization of the world system. It

prevented Korean intellectuals, who are critical of the system, from possessing North Korea as their symbol of criticism on South Korea and their anti-modern nostalgia.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re being objects of reproduction among the powerless situation, as there is no prospect of securing totality, and of planning modern subjects. On the other hand, 『Baridegi』 is the literary incarnation of live desire, that is eager to stand out on the middle of globalization. To assert cultural identity, the writer strengthens modern dichotomy such as West/East, Male/Female, Reason/Sensibility and Conscious/Unconscious. Especially, symbol of Female-Eastern proficiently repeats the Orientalism.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re named assertively as ‘minority’ that they are not active agents, but objects of sympathy and compassion. They are also seized as ‘the others’ to be used for Korean intellectuals, in their attempts to cut into the World literature. Diaspora motif cannot be a fresh experiment to seek for new identity, alternative energy and dynamic wave of dispersion.

Key Words : Diaspora,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gender-sexuality, multiculturalism, gender politics, supranationalism, post-border imagination, romance plot, Diaspora intellectuals, immigrant females.

■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7월 28일

■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